



사진 / 중국미술연구소 제공

16세기 조선 산수화, 일본에서 돌아왔다

글 박상현 기자

16세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 시대 산수화 2점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작자 미상의 이 그림들은 국내 회화 중 최고(最古)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미술연구소는 일본의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조선 전기 소상팔경도 2점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밝혔다.

이 그림은 가로·세로가 각각 약 30.5cm 크기다.

중국에서 11세기부터 그려진 소상팔경도는 후난(湖南)성 소수(瀟水)와 상강(湘江)이 만나는 곳의 풍경을 묘사한 산수화를 통칭한다.

소상팔경도는 8개의 각기 다른 주제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돌아온 그림은 '산시청람'(山市晴嵐)과 '강천모설'(江天暮雪)에 해당한다. 산시청람은 산골 마을의 아자람이 낀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고, 강천모설은 해가 저물 무렵 강가에 내리는 눈을 표현한 작품이다.

한국과 중국 회화사 연구자인 이타쿠라 마사야키(板倉聖哲) 일본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교수는 "2008~2009년 일본 도치기현립미술관에 전시된 소상팔경도 두 점과 짝을 이루는 작품으로 보인다"며 "이 그림들은 각각 '조세쓰'(如雪)라는 서명이 있는 상자에 보관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기장군에 영남권 첫 치유의 숲

글 김상현 기자·사진 조정호 기자

부산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일원에 영남권 최초의 '치유의 숲'이 조성돼 11월 3일 문을 열었다.

이 숲은 부산대 학술림 부지와 기장군 소유 임야에 조성됐다.

부산대의 학술림 기능을 유지하면서 부산시가 숲을 조성해 관리한다.

치유의 숲은 전체 면적 153ha에 방문자센터, 숲 문화센터, 학술림 연구동, 60대 규모의 주차공간을 갖추고 있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설로 숲속 치유마당, 풍욕장, 숲속 명상터, 솔비람 쉼터, 마음 나눔터 등을 조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초·중학생 동반 가족을 위한 '행복한 숲', 성인 대상 '심이 있는 숲', 청소년 대상 '내 마음의 숲', 어르신 대상 '다시 찾는 숲', 임신부부를 위한 '태교 숲'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겨울철(12~2월)을 제외하고 매일 2차례(오전 10시, 오후 2시) 운영된다. 체험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참가 희망자는 부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부산시 푸른도시개발사업소(☎ 051-888-7117), 치유의 숲 방문자 센터(☎ 051-976-2831~3)



포항에 과메기 문화관 생겼다

글 임상현 기자



사진 /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의 겨울철 특산물인 과메기를 홍보하기 위한 문화관이 구룡포읍에서 문을 열었다. 연면적 5천여㎡에 4층짜리인 문화관은 홍보관, 해양체험관, 해양관, 영상관, 기획전시실, 과메기 판매장, 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증강현실(AR)을 활용해 펭귄, 북극곰, 범고래와 함께 어울리는 북극 체험공간과 과메기 캐릭터가 숨은 모션슈팅 볼 풀장, 가상 제트스키 체험 등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체험 시설도 있다.

해양관에서는 모래와 3D 공간인식기술을 결합해 감자의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수확할 수 있다. 화석으로 공룡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홍보관에서는 과메기 등 포항 먹을거리를 맛보고 과메기 유래와 역사, 70년대 구룡포 모습을 볼 수 있다. 문화관 인근에는 예술인 창작 공간인 아라예술촌이 문을 열었다. 연면적 977㎡ 2층 건물에 창작공방과 다목적홀, 커뮤니티 공간, 시민 체험공간 등을 마련했다.

전국 최대 규모 야시장 조성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서문시장 인근에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열었다.

대구는 서문시장 5지구 뒤쪽 471㎡ 터에 연면적 230㎡인 3층 건물을 지었다. 1층은 공동생활공간과 카페로 사용하고, 2~3층에 객실 7개를 만들었다. 8인실 2개, 4인실 1개, 2인실 4개로 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방마다 화장실과 에어컨, 냉장고, TV 등이 있어 가족이나 단체 투숙객, 특히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여성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식으로 토스트, 수프, 죽 등 게스트하우스 전용 메뉴를 선보인다. 한옥 정원에서 투숙객끼리 소통하는 야간파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숙박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한복체험, 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문한옥 게스트하우스 개장으로 서문시장은 김광석길 등 대구 대표 관광지와 연계된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구 서문시장 한옥 게스트하우스 개장

글 이재혁 기자



사진 / 대구시 제공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지정

글 손현규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의 문학 분야 창의 도시'로 지정됐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10월 31일 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부천시가 2017년 창의 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부천시는 세계에서 21번째로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네트워크 멤버로 이름을 올려 영국 에든버러, 아일랜드 더블린, 체코 프라하 등과 세계적인 문학 도시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는 각국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장려하는 국제 네트워크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세계 각국 도시를 심사해 문학, 디자인, 영화, 미디어아트, 음식, 공예, 음악 등 7개 분야의 창의 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국내 승인을 통과했고, 올해 6월 유네스코 본부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변영로, 목일신, 양귀자, 팔박, 정지용 등 부천에서 활약한 문학가들의 기념사업과 문학단체 활동을 담았다. 또 만화·웹툰 등 콘텐츠 산업,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을 강조했다. 문학 분야의 역사적 유산, 풍부한 문화콘텐츠, 도서관 인프라를 인정받아 동아시아에서 문학 분야의 창의 도시로 지정받기는 부천시가 처음이다.

사진 / AP-연합뉴스

한국 바둑의 전설이자 바둑황제로 불리는 조훈현 국수의 업적을 기리는 바둑기념관이 전남 영암 월출산 기차랜드에서 문을 열었다.

'바둑황제' 조훈현 바둑기념관 개관

글 손상원 기자

기념관은 기존 기(氣) 건강센터의 용도를 변경하고 내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한 것이다. 한국은 물론 세계 바둑계에 남긴 조훈현 국수의 업적과 관련한 소장품을 전시하고 한국 바둑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연면적 884㎡,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기념관에는 5개의 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갖췄다. 또 방문객들을 위한 아날로그 바둑체험실, 가상 바둑 대국이 가능한 디지털 바둑체험실, 수장고, 영상실, 강의실이 마련됐다. 전시실에는 조훈현 국수가 한국 바둑 역사상 최초로 세계무대를 제패한 1998년 제1회 응씨배 세계선수권 바둑대회 등의 우승 트로피가 전시된다. 도자기 애호가인 그의 휘호 '無心' (무심)이 새겨진 도자기를 비롯해 총 700여 기증품 중 200여 점이 선보인다.



사진 / 영암군 제공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글 박상현 기자



'조선통신사 기록물'과 '조선왕실의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은 등재가 불발됐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조선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바쿠후(幕府, 무사정권)의 요청으로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에 관한 기록을 지칭한다. 전쟁을 치른 양국이 사절단을 통해 문화교류를 이어갔고 평화 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왕실의 어보(御寶)와 어책(御冊)은 의례용 도장인 어보 331점과 세자 책봉이나 직위 하사 시에 대나무나 옥에 교서를 새긴 어책 338점으로 이뤄졌다. 유교 국가인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유물로, 제작 연대에 따라 서체와 장식물이 조금씩 다른 점이 특징이다.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은 일제 항거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 있는 문건 2천472건으로 구성됐다. 국가적 위기에서 시민들이 책임을 다한 기념비적 사건에 대한 기록이 온전히 보관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3건이 새로 등재돼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16건으로 늘어났다.

사진 / 광명시 제공

경기도 광명에 '기형도 문학관' 문 열어

글 이복한 기자

요절 시인인 기형도(1960~1989)를 기리는 문학관이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서 문을 열었다. 광명시는 29억5천만원을 들여 시인이 살았던 소하동 일대 5만3천여㎡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879.78㎡ 규모로 문학관을 건립했다. 문학관 1층에는 시집과 육필원고 전시실이 들어서고 2층은 북카페와 자료실, 3층은 강당과 창작체험실을 갖추고 있다. 개장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형도 시인은 다섯 살이던 1964년부터 29세로 요절한 1989년까지 경기도 시흥군 소하리, 지금의 광명시 소하동에서 살았다. 광명시는 시인의 큰누님인 기향도 씨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했다.



사진 / 광명시 제공